17세기 프랑스판 막장드라마…맘껏 웃자

광주시립극단 '연극적 환상' 국내 첫 선…10~11일 동산아트홀
대한민국 극작가상 수상 선욱현씨 연출…30년만에 고향 무대
"컴퓨터 그래픽보다 마술·그림자극 통해 레트로 감성 자극할 것"

선욱현 연출가

'인생은 연극이요 마법이다.'

몰리에르, 라신과 함께 '프랑스 3대 고전작가'로 불리는 피에르 코르네유의 '연극적 환상'은 자신의 주인이 사랑하는 여자와 연인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렸다. 다소 황당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프랑스 고전 희극 중 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명작으로 코르네유는 희극과 비극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기괴한 괴물', '변덕스러운 작품'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광주시립극단이 '연극적 환상'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무대에 올린다. 오는 10~11일 오후 7시30분, 12일 오후 3·7시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이번 연극은 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을 역임하고 2018년 제1회 대한민국 극작가상을 수상한 광주 출신 선욱현(53)씨가 각색·연출을 맡아 눈길을 끈다. 지난 7일 광주시립극단 연습실을 찾아 선 연출을 통해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선 연출은 "'연극적 환상'을 철저하게 코미디로, 현대적으로 풀겠다. 이번 공연을 통해 맘껏 웃고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며 연출에 임하는 소회를 밝혔다.

이어 "고향을 떠난지 약 30년만에 광주에서 선보이는 작품이다. 지난 10월 광주에 내려와 매일 6~7시간씩 연습에 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 연출은 고등학교 축제 때 성극에 출연한 것을 계기로 연극에 흥미를 느꼈고, 전남대 신방과에 진학하자마자 연극동아리 '전대극회'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서울 연극무대에서 활동했고 2014년부터 4년간 강원도립극단 예술감독으로 일했다. 지금은 (사)한국극작가협회 이사장과 춘천인형극제 예술감독을 맡고 있다.

이미 국내에서 많이 공연된 몰리에르나 라신의 작품보다는 피에르 코르네유를 처음 소개한다는 설렘이 좋았다는 그는 "극중 인물들의 우스꽝스러움이 21세기 오늘에도 통한다. 17세기 막장드라마는 지금의 현실에 비하면 순진한 편이다. 관객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즐길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시대에 비극보다는 희극을 무대에 올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시립극단은 민간극단보다 안정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무언가 의미를 담고 있는 작품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싶었죠. 그렇게 고민하다가 한 불문과 교수님의 추천을 받아 '연극적 환상'을 공연하게 됐습니다."

광주시립극단의 '연극적 환상'이 오는 10~12일 유·스퀘어 문화관 동산아트홀 무대에 오른다.

이번 작품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보다 국내 초연 작품이라는 점이다. 선 연출은 관객들이 보다 쉽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품을 직접 각색했다. 그동안의 시립극단 작품들이 연극적, 예술적인 부분에 치중했다면 이번 작품은 관객들의 눈높이에 맞춰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고전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선보일 예정이다.

그는 "3시간짜리 원작 드라마를 1시간 30분으로 줄였다"며 "70대이신 제 부모님이 보셔서 이해가 되고 재미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작품을 각색했다"고 설명했다.

한가지 눈여겨 봐야할 점이 또 있다. 바로 마술과 그림자극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선 연출은 "마술과 그림자극을 통해 레트로 감성을 자극할 생각"이라며 "이를 통해 관객들이 즐거움을 배로 느끼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요새 컴퓨터 그래픽 기술은 아무데서나 볼 수 있잖아요. 저는 컴퓨터 그래픽을 사용하기 보다는 마술과 그림자극을 통해 컬러 영화를 처음 본 것 같은 감성을 전달하고 싶었어요. 레트로 감성으로 관객들을 자극하면서 웃음을 주고, 이를 통해 시립극단이 좀더 관객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기를 바랍니다."

선 연출은 올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많은 관객들을 수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다. 그 때문에 내년에도 이 작품이 무대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크다.

그는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초연에 명작없다'라는 말인데요. 작품을 한번 무대에 올리고 나면 개선해야할 점, 보완해야 할 부분 등이 생겨요. 이를 잘 다듬어서 내년엔 더 완성된 모습으로 관객들과 만나기를 바랍니다. 작품을 한해 소비하고 버리지 말고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보인다면 여러번 수정하더라도 레퍼토리로 만들어 다음해에도 그 다음해에도 꾸준히 무대에 올렸으면 좋겠어요."

한편, 방역지침에 따라 객석 거리두기를 실시하며, 티켓은 전석 1만원이다.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 티켓링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문의 062-511-2759.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밀루와 나'

황중환 '별의 항해' 전
12일까지 산수미술관

만화가이자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는 황중환 작가는 '연금술사'로 유명한 브라질 작가 파올로 코엘료의 책에 삽화를 그려 화제가 됐었다. 또 신문, 잡지 등을 통해 독자들에게 따뜻한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림들로도 눈길을 끌었고 여행기, 일상 에세이 등 총 23권의 책을 펴내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 2013년부터 조선대 미술대학 애니메이션학부 교수로 재직중인 그는 최근에는 전라도와 지리산 주변을 여행하며 느낀 감상과 만난 사람들 이야기를 글과 그림으로 옮기고 있다.

황중환 작가 개인전 '별의 항해 Sailing stars'가 이 오는 12일까지 산수미술관 1층(광주시 동구 산수동 26-4)에서 열린다.

1전시실에서 만나는 '별: 착한 사람들이 사는 마을엔 별이 땅 위로 뜬다'는 작가가 전라도와 지리산 주변 시골마을을 지날 때의 느낌을 그린 것으로 따뜻한 위로를 주는 작품이다. 드로잉 작품 연작 시리즈는 코엘료와 함께 낸 책 '마법의 순간' '마크툽'에 실었던 그림을 2020년 일러스트레이션페어에 출품하며 다시 그린 작업 일부와 최근 작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반려견 '밀루'를 그린 그림, 내년 펴낼 예정인 에세이집에 들어갈 신작이다.

2전시실에서는 '연인', '청춘', '밀루'를 포스터로 디자인한 작품, '아저씨의 꿈' 등이 전시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문예회관 '음악산책'
10일 11시 마지막 공연

광주문화예술회관(관장 성현출)이 진행해 온 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의 마지막 공연이 오는 10일 오전 11시 문화예술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날 무대에는 바리톤 공병우〈사진〉가 올라 '사랑'을 주제로 한 곡을 들려준다.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아리아부터 가곡, 가요까지 시대와 장르를 넘나드는 사랑노래를 선사한다.

70여 분간 진행되는 공연은 '설렘', '격정', '이별'의 3가지 소주제로 구성된다. 레퍼토리는 윤학준의 '마중', 마스네의 오페라 아리아, 라흐마니노프의 가곡 '아름다운 여인이여 내 앞에서 노래하지 마오' 등이다.

이번 공연에는 무용가 박소영이 출연, 특별한 무대를 선보인다.

공병우는 서울대 음악대학을 졸업, 동대학원 재학 중 프랑스로 떠나 프랑스 국립오페라학교와 마르세유 국립음악원에서 공부했다. 이후 오페라 '라 보엠', '돈 카를로', '돈 조반니' 등에 출연했으며, 2016년부터는 전남대 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전석 1만원. 문의 062-613-8234. /전은재 기자 ej6621@

온라인으로 만나는 '광주건축·도시문화 축제'

이달말까지…'올해의 건축가 100인전' 등

올해로 17회를 맞는 '광주건축·도시문화 축제'는 광주 지역 건축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다양한 전시를 통해 전국, 그리고 세계 건축 트렌드를 만날 수 있는 장으로 의미 있는 행사다. 광주건축단체연합회(회장 남승진·이하 연합회)가 주최하는 행사에는 해마다 지역 건축인과 건축에 관심있는 시민, 건축 문화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아쉽게도 올해는 코로나 19로 축제 자체가 온라인 행사(gfauc.gjfika.org)로 대체됐지만 짧은 기간 행사가 열렸던 데 반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번 달 말까지 한달간 전시가 계속돼 건축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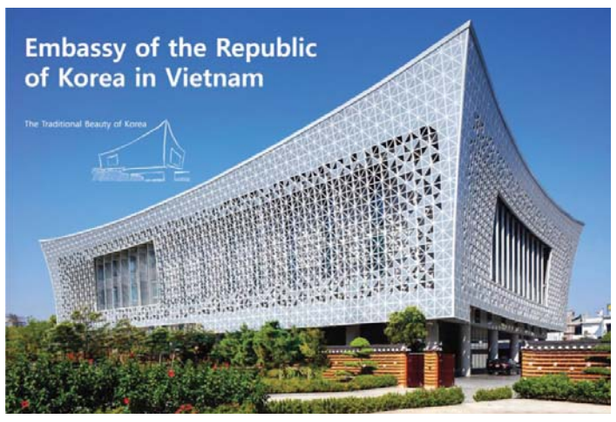
대한건축사협회 광주시건축사회,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3개 단체가 모인 연합회는 이번 전시가 끝나면 현재 구축이 완료된 연합회 홈페이지에 지금까지 열렸던 '광주건축·도시문화축제' 관련 자료를 모두 게재해 아카이브화할 예정이다.

이번 축제에서 선보이는 섹션은 모두 13개분야다. 올해 광주의 우수 건축물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제24회 광주시 건축상 수상작품'전에서는 비주거 부문 금상을 차지한 양림동 공예특화거리를 비롯해 주거 부문 은상 수상작인 일곡동 단독주택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제24회 광주건축상 수상작 '일곡동 주택'

또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 소속회원들의 회원전과 (사)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 100인전 등도 눈길을 끈다.

한국건축가협회가 선정한 '2020 올해의 건축가 100인전'은 현대건축의 트렌드와 세계 건축가들의 건축철학을 한 곳에서 확인하고 살펴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특별전이다. 또 건축이 상상할 수 있는 것, 또는 그 이상의 가치를 담아내고 펼치는 장을 제공한 제3회 광주시건축대전 수상작은 건축 전공 학생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모전'과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선발된 작품들이다.



베트남한국대사관

이와 함께 광주 곳곳에 숨어 있는 아름답고 매력적인 도시공간을 찾아 시상하는 '아름다운 문화도시 공간상 수상작 전시', '장애없는 세상 만들기 작품 전', 강원도, 경기도, 제주 지역 우수 건축물을 소개하는 '2020 4개 시도 건축문화상 교류전', '광주건축상 역대 수상작'전 등이 눈길을 끈다.

일반인들이 참여한 코너도 있다. '건축·도시 사진공모 수상작 전시'와 광주지역 유치원생,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건축·도시 그림그리기대회 수상작 전시'다. 한편 2020년 자랑스런 광주건축인으로는 윤익상 건축사가 선정됐다. /김미은 기자 mekim@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철재시공모습
옥상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스틸방수시공모습
MODERN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특허청